|  |  |  |  |
| --- | --- | --- | --- |
| **파견대학(원)** | 와세다대학교 | **파견국가/도시** | 일본/도쿄 |

|  |  |
| --- | --- |
| **제 목** | **東京사절단 2019** |
| **<지원동기 및 지원절차>**Campus Asia Summer Intensive Program은 한국의 고려대, 중국의 북경대, 그리고 일본의 와세다대 학생들이 모여 일주일 간 함께 동아시아와 관련된 공통의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각자만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제기에서부터 해결책까지 일련의 프로젝트를 수행해가는 프로그램이다. 중요한 것은 3개 대학교에서 참가한다고 해서 단순히 당사자인 3국의 학생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유럽 국가의 학생들 등 동아시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성과 이질감이 공존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후 지원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라고 하자면 한국의 고려대, 중국의 화동사범대와 하얼빈공업대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교를 각각 다니며 여행이 아닌 3국 모두에서 실제 삶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 모두가 어우러져 한자리에서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중국에서의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의 생활은 분명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막연히 한국에서 바라본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생각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을, 동시에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여러 면에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미지”로서 보편화시킨 대상이 아닌 직접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시에 프로그램 활동 후 한 학기 동안 와세다대에서 교환학생을 이어나갈 예정이었기에 같은 학교 친구들을 미리 많이 사귀어보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도 있었다. 진행된 지원절차와 관련해서 간략히 언급하자면 먼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였고, 서류 및 학점기준과 영어성적(TOEFL)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을 진행하여 고려대학교에서는 최종 6명이 와세다대에서 진행하는 Campus Asia Summer Intensive Program에 참가하게 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및 숙박과 공식일정에서의 만찬 등을 제공해주었으며, 나머지 개인경비 및 왕복항공료 등은 자가부담으로 진행되었다.**<프로그램 활동경험 및 소감>**본 프로그램이 가장 특별하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꼽으라면 바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역사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한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한중일 그리고 대만까지 이 4개 나라만 하더라도 제국주의 시대와 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각 국가 간의 역사적, 정치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관련 문제들을 바라보는 국가 간의 큰 견해차이와 그 민감성으로 인해 늘 외면 받아온 채 이러한 자리에서는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주제나 문제들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획기적으로 민감한 만큼, 허심탄회하게 대학생의 열린 마음으로 역사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도해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과거 일제강점기의 역사에서 비롯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이, 중국과 일본 역시 비슷한 과거에서 비롯된 난징대학살 등의 문제가,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국공내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호불인정이 보여주듯, 언뜻 보기에도 화해와 공존보다는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된 역사와 그와 다를 것 없는 현재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의 역사가 단순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동아시아 공존·공동의 번영을 해침은 물론 서로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어김없이 수면 위에 드러나는 기폭제로서 영구적인 해결이 미뤄진 채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오고 있다는 데 있다. 때문에 문제의 본질인 역사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함과 동시에 그 주체가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공통의 경험, 다른 관점, 공유되는 이해”*보다 활발한 토론의 brainstorming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야스쿠니 신사 안에 위치한 박물관 견학, WAM 위안부 기념관 견학, 신오쿠보에 위치한 한국박물관 그리고 요코하마 차이나 타운 방문 등이 있었다. 먼저 야스쿠니 신사 안에 위치한 박물관에서는 지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일고의 사과나 반성이 없는, 오히려 그 당시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향수를 느끼는 허무맹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일부 우익들의 편향된 시각을 반영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도를 지나친 행위에 연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버젓이 자랑스럽게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는 일본의 전범기는 지금의 독일이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를 터부시하며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동의 부끄러운 민낯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었다. 그럼에도 희망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다음으로 방문했던 WAM 위안부 기념관에서 만난 일본인 큐레이터 분으로부터 지난 세대 일본이 저지른 죄를 직시하고 이를 알리며 다시는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본인이 큐레이터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였다. 부족한 예산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쟁 당시 위안소가 어디에 몇 군데가 있었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모습과 일본에서 종종 터부시됨에도 이 전쟁 범죄의 책임에는 히로히토 당시 일왕이 있다는 발언을 소신껏 모두들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는 모습은 내게 큰 감명을 주기 충분했던 것이다. 사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외국인 친구들 앞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였다. 신오쿠보에 위치한 한국박물관에 방문하였을 때, 그곳은 단순히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 있는 역사를 단편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접목시켜 설명함으로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되었던 곳이었다. 동시에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 친구들로부터 여러 호기심 어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내 스스로가 한국의 홍보대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국민 한 명 한 명 모두가 외교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려대를, 넓게는 한국을 대표하여 우리의 역사를 설명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유의미한 토의와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은 분명 일상에서 쉽게 경험해보기 힘든 값진 자산이었던 것이다. 이후의 일정은 시즈오카에서의 1박 2일 workshop을 통해 자유롭게 서로가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의·응답 및 토의 방식으로 나눈 뒤 도쿄로 돌아와서는 공존과 화해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하는 소위 “Campus Asia Museum Exhibition”을 그룹별로 기획하고 관련 포스터를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었다. 어떤 역사에 방점을 둘 지,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다양한 국가로 구성된 관람객의 공감을 얻을지, 그리고 어째서 이 전시회가 동아시아의 공존·화해·번영을 담아낼 수 있는지 등 모든 것이 자율에 맡겨졌기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이다. 일례로 단순히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기존의 박물관이 아닌 방탈출, 보드게임, 즉석인터뷰 등이 어우러진 체험형, 쌍방향 소통의 박물관 등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기획한 전시회를 모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종합하는 것으로 일주일 간의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Episode>**프로그램 중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설명하자면 같은 조 내의 중국인 친구와 대만인 친구의 설전(?)을 매일 한 번씩 구경했을 때였던 것 같다. 같은 조로 편성되고 나서부터 여러 논의가 한창 이어질 때면 어김없이 둘 사이의 중국어로의 대화가 이루어지곤 하였는데, 중국어를 잠깐 공부한 나로서는 말이 너무 빨라 처음에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진지하게, 때로는 격앙된 모습으로 설전을 이어가는 두 친구를 보고 옆에 있던 다른 중국인 친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묻자, 그 친구는 중국과 대만 간의 복잡한 역사와 정치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주제가 동아시아 역사와 관련되다 보니 종종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둘만의 설전을 이어갔고, 구체적으로는 쑨원에 대한 상반된 평가, 현재 진행형인 양안 갈등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서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토론을 해나갔던 것이다. 때문에 중국어로 끼어들 엄두는 안 나지만 나 역시 이 둘의 토론에 참여하였고 그러자 다른 중국인 친구들, 대만 친구들까지 가세하여 종종 일장토론을 벌이곤 하였다. 물론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과거 히토츠바시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있었을 때 만났던 여러 중국인 친구들과 개인적으로는 친함에도 쉽사리 민감한 정치문제와 관련해서 솔직한 생각을 묻지 못했던 경험과 비교해봤을 때 나로서는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속 시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 시즈오카에서의 1박 2일 당시 밤에 트럼프 카드로 시작된 모임이 한바탕 설전 및 집단토론으로 마무리된 기억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이다.**<후배참가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동아시아는 한편으로 여러 문화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현안들에 있어서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종종 있어왔지만 번번히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그 이유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에서 비롯된 뿌리깊은 상호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일정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각 국의 학생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직 생각이 완전히 무르익지 않은 만큼, 기성세대에 비해 타인의 의견에 더 개방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학생들이기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력을 감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서로를 향한 유대감은 비록 의견이 다르고 배타적일지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닌, 꾸준히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Campus Asia Program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만 이제껏 접해보지 못한 상대가 텍스트나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그래서 단순히 국적으로 구분되어 보편화된 이미지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을 가진 개인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유대감이 비로소 이 문제를 “나” 혹은 “너”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 것이며 그 당사자성이 종국에는 우리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며, 진정한 의미로서의 미래 공존,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때문에 기존의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옳은 것인지 혹시 내가 놓친 다른 부분이 있거나 내게 주어진 배경의 디폴트값을 넘어서 생각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자신있게 추천해주고 싶다.  |